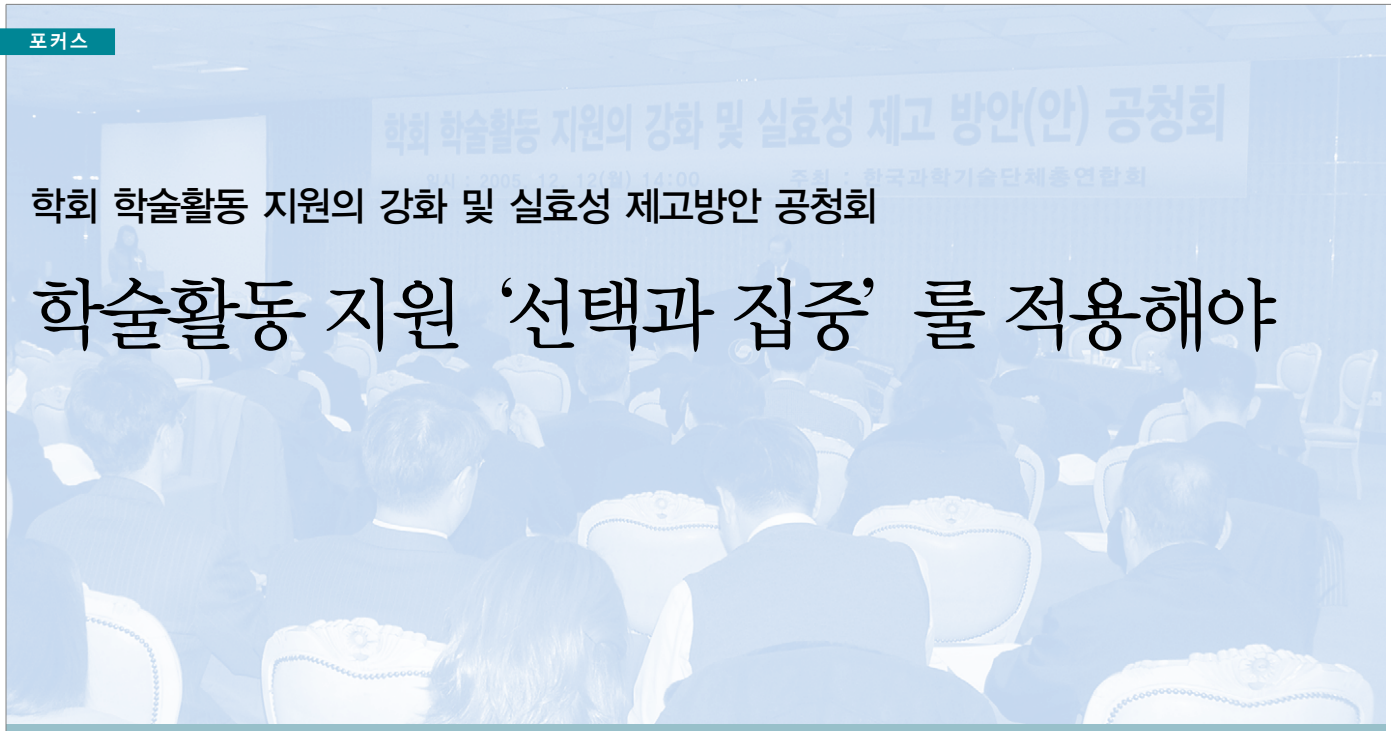

학회 학술활동 지원의 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공청회

학술활동 지원 '선택과 집중' 룰 적용해야

글 | 박근태 _ 동아사이언스 기자 kunta@donga.com

향후 학회에 대한 지원은 학회가 올린 성과나 활동에 따라 차등 지원은 물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학술지의 난립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 학술지의 공동 발간과 통폐합을 유도하고 학술대회 성격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학회 운영방식의 영세성과 세계 수준의 학술지 부족, 학술대회 운영 부실 등 최근 국내 학회들이 겪고 있는 총체적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학술단체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2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학회와 학술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회 학술활동 지원의 강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재정 · 국내외 학술대회 개선 시급

현재 과총의 학술지원을 받는 학회수는 이학과 공학, 보건, 농수산 각 분야에 걸쳐 모두 302곳이다. 이 가운데 회원수 500~1천 명인 학회가 전체의 35.4%로 가장 많고 500명 미만인 학회도 21.5%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학회의 규모 뿐만 아니라 재정상황도 너무나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들 중 연간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곳이 35.7%에 달하고 있다. 학회 전체 수입에서 회비 수입과 기업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턱없이 낮다. 특히 이들 학회의 47.4%가 10평 미만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상근 직원이 1명 이하인 학회도 4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직한 학회상'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포항공대 백성기 교수는 "과총 소속 학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 학회가 재정문제와 회원관리, 정보화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꼽고 있다"면서 "특히 재정문제나 학회지 수준 개선,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가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 학문적으로 유사한 학회나 학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들 학회원들은 학문적으로 유사한 학회와 학술지를 통폐합하거나 오히려 작은 학술단체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미국화학회, 미국물리학회, 미국물리협회는 성공적인 운영사례에 속하는 편이다. 1876년 설립된 미국화학회는 회원수 15만8천 명, 총자산만 1조1천억 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학술단체다. 매년 35개 저널에, 단행본 35~40권을 발간하고 있다. 회원수 4만3천300명인 미국물리학회와 회원 10만 명인 미국물리협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한편 참석자들은 재정적인 문제와 학술지 중복 문제 외에도 학회 운영과 국제학술대회 등과 같은 학회 국제화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LG전자 이희국 사장은 "기업체의 경우 아무리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결국 문 닫는 기업은 문을 닫는다"며 학회 지원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 정민근 기초과학지원단장은 "한정된 자원에서 학

「학회학술활동 지원의 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안)」 공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채영복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회학술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발행과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학회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학술지 너무 많다"

과총이 조사한 회원학회지수는 401개로 한글학술지가 285개, 영문학술지가 126개에 이른다. 학회지당 평균 연간 논문편수는 한글학술지의 경우 93편, 영문학술지는 56편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학술지 수가 발표되는 논문수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술지당 논문 편수가 너무 적고, 지원하는 논문 수가 적다보니 수준 이하의 논문에 대해 게재거부를 할 수 없어 당연히 논문의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전산화가 늦고 영문 논문 편수가 적어 국제화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국제과학인용색인(SCI) 등재 수준의 국제 학술지, 국내 영문학술지, 한글학술지로 기능을 나눠 국제 및 국내 영문 학술지의 국제화와 학술지 특성화를 유도하고 유사학술지의 경우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학술진흥재단의 KSCI 등재 여부, 발간 규모에 따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연간 발간 횟수, 1회당 발간 부수 등 학회지 발간 규모를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는 현행 평가 방식과 모든 학회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과총의 현행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발간체계의 전산

백성기 포항공대 교수가 '학회의 바람직한 모습: 역할, 과제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화와 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서울대 전용성 교수는 "국내 학회에서 발간되는 국제학술지의 질 향상과 영문학술지의 국제화, 국내학술지의 수준 향상과 자립화를 위해서는 먼저 과총과 학진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지원 외에도 학회 스스로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기학회 신명철 회장은 "학술지의 지원 방안 개선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학회와 학술지의 적정수를 고려한 뒤 정확한 기획과 기준안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만 쓰는 학회,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고비용-저효율' 학회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학회 현황과 과제, 지원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양대 이태식 교수는 "현재 우리 나라 학회의 상당수는 돈은 많이 쓰지만 별로 남는 것이 없는 학술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02개 과총 등록학회가 개최한 학술회의는 모두 431건으로 회의당 평균 162.27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회당 평균 예산은 평균 6천여만 원으로 개최비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302개 등록학회 중 37.7%인 114개 학회가 국내에서 행사를 치렀으며 평균 8.5개국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 유수 학술회의와 비교했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공학 분야의 학술회의 개최건수와 발표 논문 수가 전체 1/3을 웃돌아 분야별로 편중이 심각하고 학술대회 관련 예산에서도 보건, 공학 분야와 농수산, 이학 분야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큰 문제는 대회 개최측이나 회원, 후원사의 학술정보교류의 장이 되어야할 학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표장의 한산한 좌석이나 남는 게 없었다는 불평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먼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정기학술회의와 공동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적절한 예산배분과 계

전용성 서울대 교수는 '학술지 발간: 현황, 과제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태식 한양대 교수가 '학술회의 개최: 현황, 과제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획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성격이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은 전문 학술대회를 모아 연합하면 자원 집중과 논문 편수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회원들의 중복가입을 막는 한편 부실한 학회운영도 함께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학술 프로그램을 줄이는 대신 교육세션과 심포지엄, 학생연합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학술회의 성격을 바꾸자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산업체 관계자는 물론 정부관계자나 정치권 리더, 학생들에게 확산시키는 활동을 통해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세션별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좌장 – 장호완 과총 부회장 겸 서울대 교수 토론자 – 전용성 교수, 이태식 교수, 백성기 교수, 최윤재 교수, 황지호 박사)

종합토론 시간에 한국가정관리학회 성미애(방통대 교수)가 질의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기준 명확히 해야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소규모 학회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 자칫 소수 학회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회원수나 논문 투고수, 학술회의 개최건수 등 학회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경우 한국적 특수성에 기반한 일부 학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중단될 수 있다는 게 이들 학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국동물분류학회소속인 서울대 김문수 교수는 "과총의 역할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큰 학회들보다 소수 학회들의 존립을 지원하는 일"이라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잘못 적용되면 아예 명맥이 사라지는 연구 분야도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천문학회 부회장인 부산대 안홍배 교수도 "천문학회는 500명 이하 군소 학회지만 매년 수십명의 발표자가 참가하는 학회와 국제 학회를 열고 있다"며 "군소학회의 통폐합이나 학술대회 통합 유도도 학회별 특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감안하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물리학회장인 한양대 김채옥 교수는 "모든 학회를 똑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며 "크기와는 상관없이 구조조정 해야 할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영복 과총회장도 "선택과 집중은 무조건 모든 소규모 학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방안을 효율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원 학회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ST